

# 순정이

“그때가 언제 올는지 모르니 조심하  
항상 깨어 있어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마르 13. 33. 37).

대림 제 1 주일

제 1 독서 : 이사 63. 16 b - 17. 19 b ; 64. 2 b - 7

제 2 독서 : 1고린 1. 3-9

복 음 : 마르 13. 33-37

## 강론

# 가는 세월 오시는 주님

• 서 광 석 신부 / 광주가톨릭대학 •

다 지나갔습니다. 열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할 일을 다 했다고 지쳐 떨어진 낙엽들이 무엇인가 마지막을 알려줍니다. 싸늘한 이 겨울이 우리의 가슴에 대고 외칩니다. 세월은 갔다고 또 간다고 가슴에 방망이질을 합니다. 세월이 흐르는 것을 모르는 체하는 이에게 물어보라며 소매를 붙잡습니다.

낙엽 구르는 소리, 빈 들에 찬바람 소리, 말라 버린 수숫대 부딪히는 소리, 연탄 구루마 굴러가는 소리가 세월 흘러가는 소리를 냅니다. 무엇인가 안타까운 느낌, 그리움을 갖게 하고, 옛 시절을 돌아보게 하는 계절입니다.

했어야 하는데, 한 일은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지났고 이제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막을 수 없는 세월이 두렵게도 느껴집니다. 무엇인가 끝을, 인생의 끝도 생각하게 합니다. 국민학생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현대의 어떤 철학자도 인간은 죽음을 향해 살며 이것이 근본적인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세월, 그것은 우리에게 간단한 지혜를 선사합니다. 흐르는 세월은 분명 지나가고 누구에게나 끝은 온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세월은 창조주가 우리를 가르치는 칠판과 같습니다. 이 세월이라는 칠판 안에 새싹과 폭풍, 단풍 그리고 꽃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세월은 서늘이 퍼렇던 온갖 것들에 찬서리를 쏟아 부으며 기를 꺾어버립니다. 세월을 알라고 호통칩니다. 그리고 또 호소합니다. 이 짧은 세월을 깨달으라고, 모두가 부질없는데 무얼 망서리느냐고 묻습니다.

세월은 흘러 먼 앞날도 분명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랑곳 하지 않고 오고야 말 것입니다. 것처럼 분명 주님도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이 흐르는 것은 오히려 기쁨입니다.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당신의 그 세월로써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  
세월이 흘러 먼 앞날이 오듯  
분명 주님도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이 흐르는 것은  
오히려 기쁨입니다.  
”

## 여명

#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한 상 갑(바로로)

12월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지만,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림 첫주일을 한해의 시작으로 삼는다. 하느님의 역사 안에 끝과 시작을 말하는 것이 우스운 일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정한 약속이 있는지라, 우리는 시작과 끝을 계산하며 살아가 마련이다. 그래서 12월을 지내는 가톨릭인의 감회는 특별해 한다. 지난 한해, 교회의 모습에는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지 우리들 하나하나의 얼마나 성장했는가? 가톨릭인이라면 이 대한 결산서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우리 교구는 교구 공동체의 중심점이 되는 새교장을 모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그것은 주교좌의 오랜 석에서 맞보는 기쁨만은 아닌 듯 싶다. 8개월이 지난 오늘, 리는 교구 안에서 생기 넘치는 어떤 느낌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느님 백성인 교회,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말 조금씩 마음에 와 닿는 징후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 곧 교회 재정문제를 다루는 교구 재무평의회에 평신도를 임했다는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한 모이다. 이 일은 한국천주교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일로, 우리 교구가 한국 최초의 자치교구로 설정된 역사와 걸맞는 조처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일의 성과가 어떤 제도보다는 사람에 달려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 그 제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와 더불어 그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함을 역사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도의 무용론을 말하고자 함 아니다.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는 사람임을 강조하고자 할 따름이다. 따라서 교구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가 지금까지 입고 왔던 옷을 벗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갈 마음의 변화를 실제 삶으로 살지 않으면 안된다.

하느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창세기 1장 참조)인데, 우리 인간은 그 질서를 무너뜨려 오늘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기조차 어려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말았다. 자연질서와 망가짐은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 꼭 지켜져야 할 많은 질서들이 무너졌다. 날이 새고 나면 항상 무섭고도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 우리의 숨통을 짓누르고 있다. 이러한 역사가 만들어져 기까지 우리(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던가? 날만 새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빈다’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습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크리스찬의 삶은 항상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다. 우리는 가끔 너무나 피상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 그러나 이 시대의 주님은 바로 내 곁에서 나의 관심과 사랑 나눔 필요로 하는 내 이웃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할 것이다. 지금 그분이 우리(나)를 찾게신다.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고.

## 다락방의 아들

아버지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다. “한 번만 더 우리의 가정의 계율을 깨뜨리면 너를 추운 다락방으로 보내겠다.” 그러나 아들은 또다시 가정의 계율을 어기고 말았다.

아버지는 아들을 추운 다락방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아들을 추운 다락방에 보낸 부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애는 지금 얼마나 외로울까?” 아버지는 추운 다락방으로 올라가 딱딱한 바닥에서 베개도 없이 잠들어 있는 아들을 꼭 끌어 안았다. 아이의 눈가에서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 쌍용소식에서 -



# 12월, 그 아쉬움에

## 내일 걱정은 내일에

박 용 화(베드로)/용머리 성당

는 무척이나 가을을 많이 탄다. 그것도 해마다 고처럼 끄꽂 앓을 정도로 심하게 탄다. 내가 세 번씩 대학을 옮겨 다녀야 했던 강한 신념(?)이 싹튼 때 이 가을이었고,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어 몇 번 나 고향을 등진 때도 이 가을이었다.

가 유난히 가을을 타는 이유도 그렇겠지만, 많은 이들이 추남(秋男)이니 어쩌니 하면서 가을을 우울하게는 가장 주된 원인은 한해가 가을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스한 봄에 싱그럽게 돌아나는 새싹처럼 한아름 희망이 부풀어 시작했던 한해였는데, 가을에 접어들면서 보니 뭐 하나 제대로 뻗죽하게 이뤄 놓은 것 없는 데 젖어 그저 불안하고, 고독하고, 하고 있는 일이 많지 않고, 그래서 떨리 떠나고 싶고 그러는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낙엽은 떨어져 새봄에 피어나는 새싹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썩어가고 있으며, 불안하고 슬퍼하지만 결국 그 개똥 철학으로 인해 정신은 단단히 되어 새봄을 희망으로 맞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그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지킬까" (마태6,31).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예수님의 백이 있잖은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음을 감사드리면서,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최선을 다했다면 것으로 만족하자. 조금이라도 눈길을 돌려 나보다 못한 자들을 느껴보고 그들에게 참이웃이 될 수 있는 여유도 가져 보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도 충분하다" (마태6, 34). 아직도 이 해는 남아 있고, 다 못한 일을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는 젊음도 남아 있으니까...

이 개인 뒤 따스한 하늘처럼 밝고 아름답게 살아가자고 실험해보는 이 늦가을, 그래도 가슴 한구석에서 숨쉬고 있는 고독과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약자인가 보다.

## 12월, 그 아쉬움에

이 영 순(비비안나)/오룡동 성당

한해가 부질없이 쓰러져가고 있다. 한 장 남아 달랑 거리는 달력에서 겨울보다도 더 선명하게 반추되는 나의 모습을 본다.

한해를 뒤돌아보기도 하고 반성에 이르기도 하며 회한을 갖기도 하는 일체의 외적 가식에서 벗어나 자기를 조용히 대면하는 시각에야 비로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밖으로만 외쳐대었던 정열이며 기운을 소리없이 안으로 되새겨 조용히 내성에 도달할 때이다.

인간이 말을 하고 살 수 있음은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축복인가.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에 몹시 괴로울 때가 있다.

편견과 위선과 아첨 등 평소에 나 자신은 얼마나 많은 가식에 사로잡힌 말을 하고 사는지 모른다.

내 주위의 가까운 친지와 이웃들,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까지조차도 가혹하게 대하고 상처입히는 말들을 많이 했다.

내 아이들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 남편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내 이웃은 또한 얼마나 서운했을까?

조금만 더 가슴을 열어 따뜻하게 대해주었다더라면...

한번 뱉고 나면 거두어들이기 여지가 없는 말의 특성을 더욱 절감하게 한다.

좀더 분별있고 예의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반성해본다.

## 마음의 불을 밝히며

이 복 자(막달레나)/인후동 성당

언제부턴가 한해 한해를 더하면서 세월이 가고 오는 걸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다. '또 한해가 가는구나.' 40대라는 별명이 붙은 탓도 있겠지만 손 안에 가득했던 젊은 날에 소중한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하나하나 빠져나가 버리고 빈 주머니가 되어가기 때문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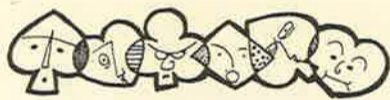
한해가 시작되면 올해는 알뜰하게 계획하고 성실하게 후회없이 보내야지 다짐하고 다짐해도 언제나 이맘 때면 메말라가는 대지와 차가운 바람을 이기지 못하여 잉잉 울어대는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절망 아닌 허탈한 마음이 되어버린다.

올해도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 많았지만 한때는 나 자신에게 감히 헤어나기가 힘든 날도 많았었다. 여러 모양의 만남(관계)들 또한 무수히 작은 오해들 때문에 깨지고 다치고 피투성이가 되는 것을 주위에서 종종 보고 느꼈었다. 그때마다 각 사람의 고유한 색깔을 존중하고 이해해주어야 한다는 각오로 만남을 유지해왔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우리 신부님의 격려 말씀대로 세상만사 모두 '그러려니' 하라고 하신 말씀이 나 자신을 편하게 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어쩐지 뒷맛이 씁쓸하게 들림은 왜였을까?

상처받았을 때, 소외당했을 때, 남의 허끝에 오르내릴 때 등, 인과응보의 법칙을 생각하면 훨씬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로 겸손하게 다가갈 수 있음을 알았다. 아팠던 기억보다 좋은 교훈으로 남기도 했다.

비록 한해가 성큼 다 가고 달력 한 장을 남기고 있지만 차분히 나 자신을 가다듬고 조용히 마음의 불을 밝혀 보리라.



### 숲정이 산책



12월은 끝맺임하는 달



## 역시 TK 군단

민영방송의 주주는 아니나 다를까 바늘 구멍도 넓혀서 들어간다는 'TK군단'의 하나.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날치기 통과시킨 방송관계법에 따라 새민영방송이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민방 내정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배주주인 '태영'이 민자당원 유력인사 10여 명의 후원회에 가입한 사실이 밝혀져 로비와 관련한 금품 제공이 아니냐는 의혹을 야기.

김재순 전 국회의장을 비롯 이종찬 씨 그리고 인천 폭력배 팔방파

두목 석방 탄원서를 냈던 서정화 씨도 포함됐으나.

지난날 군납과 관급공사와 변질된 언론인들의 비호 아래 급성장한 '태영'이 6공화국 최대 이권을 따냈다니 알만.

민주니 통일이니 헛소리하는 사람들 잘아봉개고 오로지 정권안보를 향한 충성으로 성실한 언론 신하가 되겠다고 버리고 있을텐데.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가 대서특필되고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3~4백만 원씩 들렸더니 의혹은 계속 꼬리를 물기만. **쫄**

남성 신사복 전문 판매 마춤  
유여러분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남독패션명성양복점**

☎ 88-5595  
자 84-3476  
221-9940  
전통 전주교 다리 옆  
이 시 문(성수)

신부 부케 전문점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  
범 디도

☎ 84-2628

웨딩 드레스 전문점

**신 부 의 집**

최 영 자(헬레나)  
☎ 88-6951  
동서광통로 신덕은행 앞

홍부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놀부보쌈**

오 재 천(안드레아)  
정 봉 교(마카엘라)

호지동 우진아파트 앞  
☎ 223-0297~8

**연지·곤지·웨딩드레스**

약혼복·무대복·마춤대여  
비데오·야외스넵촬영  
신부화장  
유 순 례(가타리나)  
전통성당 시버버스 승강장  
☎ 82-2347

**명 모 한 약 방**

최 성 용(오 한)  
정 순 옥(유리안나)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58  
☎ 84-7886

**태화신발백화점**

신사화·숙녀화 } 총판매장(공정직영)  
아동화·특수화

김 문 식(베드로)  
☎ 82-3118  
중남문,춘각,송악국 사거리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대여

최 운 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수시모집·해외연수생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2-8653

**명 진 식 당**  
[우족탕 전문]

이 분 옥(소화데레사)  
이리시 청인동 1가 131-6번지(중앙시장내)  
☎ 855-6773

주단·침구·훈수 전문

**부 인 주 단**

김 한 중(오 한)  
황 인 재(모니카)

전주시 전통 남문앞  
☎ 84-7294

**명 심 목 공 업 사**

구·제대·강릉대·제구장·긴의자  
상·화분대·혼례용가구맞춤전문

서 스테파노(옥봉)  
한 인나(은수)  
☎ 77-1747

도시 감각의 패션 구두

**브 랑 누 아**

김 순 희(마카엘라)  
전주지점(오거리)  
코아백화점 개장  
☎ 88-5043

개업안내

**풍 년 회 관**

김보림(스테파노), 이정옥(안나)  
김보림(가타리나)

덕진구 동산동 대교당 지하  
(북전주 농협 앞)  
연회석 300석, 주차장 완비  
☎ 76-0243

# 사목회장 30년



## 내가 먼저 행하는 기쁨

최병운(프란치스코) / 삼례 성당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1고린 3, 23).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촉되어 하나님의 충실한 도구로 칠십 평생을 한결같이 살아온 삼례 성당 전 사목회장 최병운 회장님!

현관문을 들어서서 그의 모습은 연세에 비하여 훨씬 젊어 보였다. 30년 동안 본당 사목회장을 맡아 교회활동에 차분하게 적극적으로 해온 연륜에서인지 평화로운 모습이 마음을 푸근하게 했다. “저는 큰 굴곡없이 평탄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인데 자격이 있을런지요?” 하며 약간은 부끄러운 듯이 말씀을 시작하였다.

그는 4세 때 조실부모하여 형수의 손에서 성장하였다. 학창시절 때 친구의 권유로 신앙에 처음으로 눈뜨게 되었고 그후 대부가 되어줄 분의 말을 통해 결정적으로 신앙을 가져야겠다는 결



심을 하게 되었다. “너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으며 영세 받기 전이었지만 조과만과경을 매일 바쳤다. 그는 19세에 영세를 받았는데 그때의 기쁨은 대단히 컸었다. 그것은 일찍 여윈 부모 대신으로 영적 부모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곧 공소 청년회장직을 맡았고 삼례 성당을 신축하면서 본당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자들간에 분열이 생기어 그 공사를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고 3년 후에야 다시 성당을 짓게 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한 공사장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죽을 뻔한 위험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런 체험들이 그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만들곤 했다. 이외에도 꾸리아 단장, 신협 초대.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본당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했으며 항상 솔선수범하여 봉사하는데 애김없이 자신을 소모시켰다. 이에 교회는 그의 지대한 공로를 치하하는 표창장을 세 번 주었으며, 교황청



에서도 십자가상을 주었다.

회장직을 사임한 후에도 레지오 단원으로 계속 예비자를 모으고 냉담 교우를 방문하면서 선교에 열심이다. 그가 안타까와하는 것은 모든 신자가 성당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일치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오늘도 그의 삶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다”는 신조 아래 철저히 먼저 봉사하는 삶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신앙과 모습에는 깨끗함과 평화로움이 가득하다.

### 요심이(904) 김병오

이승만정권때 강퍼 때문에 못살겠다고 국민학생이 자살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오!

박정희 전두환정권때는 있었습니까?  
없오!

그렇다면 노태우정권때만 있는일인가요?  
그렇소!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사실이군요!  
그렇소!

## 부안 성당

## 여름 해변미사의 명승지

국립공원 변산반도와 광활한 계화 간척지를 갖고 있는 부안 성당은 9개의 공소가 있으며 농업과 상업을 생계로 살아가는 가난하지만 뿌리 깊고 신앙이 두터운 신자들로 뭉쳐진 뜻뜻한 인정이 넘치는 본당이다.

이 본당의 역사를 살펴보니 덕림리에 처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은 정시몬 회장에 의해서였고 이어 그 일대에 공작리, 만석동, 등용리 등이 생겼으며 그중 만석동 공소는 초대 교구장인 김스테파노(양홍) 신부와 김바로(창현) 한국인 초대 몬시뇰과 그의 조카 김도밍고(영태) 신부의 출생지이다.

등용리 공소는 김요한(성오) 회장이 설립했으며 변산을 근거로 불무동, 공작리, 만석동에 사는 교우들을 찾아다니다가 부안 지방의 첫본당인 등용리를 개척하면서 사랑에서 교우들을 모아 신부를 모시는데 주력한 그는 성 김안드레아 신부의 근친이다.

수류 지방에 속하다 정읍 본당



에 속하기도 하였다가 1926년 5월 29일에 등용리에 이야고보(기수) 신부가 초대 담임으로 부임, 본당으로 설립되었다. 그후 본당을 부안읍, 현 본당 자리로 옮겼고 1960년에 김요셉(종택) 신부가 현 성당을 설계하여 현대식 성당과 사제관 등을 짓기 시작하였고 1963년 7월 17일에 김베드로(영구) 신부가 공사를 마쳐 같은 해 8월 27일에 한 주교께서 성당 헌당식을 거행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학교 설립과 간척지 개간, 여성들을 위한 양재 기술을 가르치는 양재학원 운영 등 세심한 배려가 있었던 무척 가정적인 본당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지금은 여름 해변미사로 이곳을 찾는 교우

들을 맞고 있는 부안 본당은 그 뿌리가 깊듯이 신앙도 인정도 우리네 가슴을 훈훈하게 해주는 본당이다.

깊은 신앙과 뜻뜻한 인정이 넘치는 본당



### 보람이네 김치직매장

김치 주문판매, 김장용 젓갈 판매 각종 행사, 예식, 경사, 야유회 및 김장김치  
● 전화 주문 환영 ●  
윤희숙 (모니카), 이영국 (테레사)  
군산시 내운동 (청문교회 앞)  
☎ 465-6677

### 베비라

출산 준비물, 유아복 및 아동복  
이명익 (테레사)  
관동로 동년제과 앞  
☎ 83-3610

† 저희 아버님 강수남(야고보)께서 돌아가셨을 때 기도해 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가족 일동 드림

저의 아버님 박규철(프란치스코)께서 하늘 나라로 돌아가심에 대해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도록 기도해 주신 교우,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들 박종락(조화서 베드로)  
며느리 안화동(프리스카)  
손자 박재형(세베리노)  
" 재범(아우구스티누스)

### 광명안경원

☎ 74-1123  
77-1123

### 철저한 개인지도 플미래속셈학원

정희연(다미아노)  
이경애(마리아)  
북부시장 앞  
☎ 75-2534

☎ 형식승인 ☎ 3-7-3825 발명특허원 3523호

Bio Ceramic  
원적외선요·사우나  
원적외선 방식으로 여성의 생리까지 맡게 해주는 제품. 확실한 혈액순환으로 신경통, 생리통, 관절염, 피로회복, 숙면, 고혈압, 저혈압, 중풍 및 암 예방

Bio Ceramic  
다보청자특별주문생산  
전화문의 환영 ☎ 73-0773  
신빅토리노·장미카엘라

### 한국다보

### 고교 신입생반

개강 12월 18일  
겨울방학 단과 강좌  
개강 12월 27일  
대입 종합반  
개강 1월 7일

### 대입필수한샘학원

전주 74-7424, 85-7424 시형명 동방생명앞

### 신서일가스 서일전력공사

가스 공급 전문업소·전기공사 전문업체  
가스 차량 각 등에 배치 신속하게 정량 배달을 약속합니다.  
☎ 72-0678, 75-8688  
251-3555, 4-3375  
정찬권(바로로), 최영희(마리아)

개소주·흑염소·고양이·봉어즙  
각종 동물 중탕 전문

### 효자흑염소

하영이(베로니카)  
전주시 완산구 호지동 1가 549-5번지  
☎ 222-3700

### 황수경산부인과

여의사  
산부인과 전문의

황수경(크리스티나)  
이승렬(엘리아)

관동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골목

☎ 84-7272

